

■ 법률 칼럼

협약서와 계약서의 차이

주로 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자를 찾는 고객은 얼마 전에는 협약서를 작성해 달라며 방문하셨다. 협약서나 계약서 모두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쌍방의 (혹은 다수의) 당사자들이 의사 합치를 문서화 시킨 서면의 일종이다. 얼핏 듣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듯한 두 문서, 정확한 차이는 무엇일까?

두 가지 문서 모두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법인 등의 거래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서식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계약서가 계약 성사를 의미한다면, 협약서의 경우 계약 성사를 위해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 당사자들이 서로의 협력의지를 밝히기 위하여 거쳐가는 과정의 일종이다.

계약서의 경우 협상이 끝남과 동시에 확정된 모든 약정 사항 (기간, 권리의무, 채권 채무 등등의 책임소지) 들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문서화한 결과물이라면, 협약서는 쌍방의 약정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되기 전에 비교적 간단하게 계약의 축이 될 만한 사항들만을 나열해놓고 계약 성사를 위해 다음 단계의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 표시다. 어떻게 보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스케치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형태의 협약서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동의서, 가계약서, 예비적 합의서, 합의서, 의향서 등으로 불린다. 미국에서는 Commitment Letter, Term Sheet, Memorandum of Agreement, Letter of Intent, Agreement in Principle 등의 문서들이 협약서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귀찮게 굳이 협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복잡한 계약일수록 많은 협약 사항들을 협상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다소 길어지고 힘들어질 수 있는 계약의 최종 성사를 위한 전초 혹은 준비 과정 정도로 볼 수 있다. 주로 기업 합병이나 고액의 매매를 협상하는 과정에 앞서 어느 정도 당사자들의 의도나 입장을 확인하며 자

금 조달이나 관련 금융 또는 정부 기관에 구비서류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투자자를 유치한다거나 공개 입찰을 하는 경우에 여러 참가자들에게서 공개적으로 협약서를 받고 심사숙고를 거쳐 최종 계약자를 선정하기도 한다.

협약서의 성격상 정말 진지한 당사자들이 간단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또한 너무 자세하고 복잡한 협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계약서를 되풀이해서 쓰는 것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비될 수도 있다.

협약서의 경우 당사자들의 목표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까지 서로의 명확한 의도를 확인하고 재차 점검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법적으로 전혀 구속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서면으로 약정사항을 문서화 시켰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혹은 불성실하게 협상 체결에 임하는 경우 이를 증거 삼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계약법에 따르면 협약서의 경우 양측의 실질적인 의도가 무엇이나에 따라 법적 책임의 유무가 결정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다가 이에 모순되는 후행 행위로 신뢰를 저버리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법률관계를 떠나 이세상 어떤 신용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계약 성사의 유무를 떠나서 이세상의 모든 약속이 그렇듯이,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약속은 양자에게 동일하게 유리할 때 지켜진다는 옛말이 있지 않은가?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
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info@jlbridge.com
www.jlbridge.com
(949) 535-5275



■ 법률 칼럼

취업 영주권 진행 중 고용주를 바꿀 수 있나요?

미국에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됨은 물론이고 고용주의 절대적인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고용주들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대가로 영주권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법 AC21(American Comprehensive in the 21st Century) 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고용주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또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이미 진행중인 영주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AC21 106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의 조건은 첫째,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나고 (Approved I-140) 둘째, 신분 조정 신청 (I-485)을 제출 후 180일이 지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고용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이어야 합니다.

즉 I-140이민 청원서가 이미 허가가 났으며, I-485 신청서도 접수한 지 180일이 지났다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종의 직장을 찾아서 옮겨도 그동안 진행 중인 영주권 수속을 지속할 수 있고 신분 유지도 함께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I-140을 청원해 주었던 고용주가 다른 회사로 넘어 갔거나 폐업을 한 경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 물론 그 '다른 회사' 나 옮기는 '직장' 에서의 직책이 처

음 제출했던 고용주와 같거나 비슷한 직업군에 속해야 합니다. - 처음의 I-140가 승인이 되고 I-485 펜딩 (pending)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고용주에 대해 Labor Certificate (LC/Perm)을 새로 받을 필요없이 기존의 I-140과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전 고용주가 이미 승인 난 I-140을 철회하는 등, 고의적인으로 영주권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AC21규정은 H-1B 취업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AC21 105조는 H-1B소지자가 I-129 form을 이민국에 제출함으로써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고용주 변경을 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 의무 근무기간은 없습니다. H-1B 상태로 현재 고용주를 위해 하루라도 근무를 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고용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변경 신청을 했다면, H-1B 소지자는 변경 신청과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변경 신청이 거절되면 그 즉시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H-1B신분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변경 신청에 대해 승인이 날 때까지 이전 직장을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전문업체



하시마 건축

HASHIMA CONSTRUCTION INC

물, 화재, 천재지변 보험 크레임 및
수리, 리모델링 일체 통합 서비스

Terry Joe (Mr. 조) 714.745.5958